



글로벌 리더

이종오 박사



세계적 바이올리니스트

진현주 여사

이종오 박사는 경상북도 영주에서 태어나 배재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인문학 학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와 박사 학위를 취득하며 경영학에 대한 깊이 있는 학문적 기초를 다졌다.

이종오 박사의 경력은 독일에서 시작되었다. 삼성전자의 유럽수출 전진기지지에서 주재원으로 파견되어 유럽 시장 개척의 선구자로 활약했다. 이후 그는 삼성전자를 떠나 (주)엘슨전자 수출회사를 설립하였고, 러시아, 동유럽,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의 주요 시장을 개척하며 15년간 성공적인 비즈니스 경력을 쌓았다.

이종오 박사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로 재직하였고, 명지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부교수로도 활동했다. 또한 그는 엘슨전자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경영을 이끌기도 했다. 이 외에도 한국데이터전략학회의 이사로서도 활동하며 학문적 및 실무적 경험을 바탕으로 데이터 전략 분야에도 기여하였다.

이종오 박사는 2018년 10월부터 2023년까지 미국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의 대외협력 부총장과 재단 이사로 임명되어 학계와 실무를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 이종오 박사는 그의 다채로운 경력과 학문적 성과를 통해 한인 커뮤니티뿐만 아니라 국제 무대에서도 뛰어난 지도력을 발휘했다.

진현주 여사는 예원학교와 서울예고, 그리고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기악과를 졸업한 후, 1996년 독일 칼스루에 국립 음대에서 전문연주자과정(바이올린 전공)을 졸업했다. 2000년에는 독일 트로싱엔 국립 음대에서 바로크바이올린 전공 전문연주자과정을 수료했으며, 같은 해 독일 슈투트가르트 국립음대의 전문연주자 과정(실내악 과정)을 졸업했다. 그녀는 또한 오스트리아에서 Cartusiana Meisterkurs를 수료하며 A. Schwarzbach에게, 독일에서 Meisterkurs Franz Liszt를 수료했다.

독일에서는 Karlsruhe Schloss Gottesaue Velte Saal 독주회를 비롯해 Vaihingen/Enz Peterskirche 초청연주, 독일 Nuenberg 국립대학 초청연주회(String Quartet), Ostfriesische Landschaft Musikalischer Sommer에서의 연주 등 다양한 무대에서 그녀의 실력을 선보였다. Junge Kammer Philharmonie in Baden-Wuerttemberg, Stadt Philharmonie Reutlingen의 단원으로 활동했으며, 2000년에는 독일 Stuttgart Kammer Orchestra Arcata의 수석단원으로 독일과 스페인 순회연주를 통해 국제적인 무대에서 폭넓은 음악적 경험을 쌓고 재능을 인정받았다.

2000년 귀국 독주회를 시작으로, 독일문화원 초청 연주회, 한독음악 동문회 연주, 스트링 앤 보우 추천 영 스트링 플레이어 시리즈 독주회 등 국내에서도 꾸준히 연주하며 자신만의 음악세계를 구축해 나갔다. 2002년에는 스트링 콰르텟 플레이스 창단 연주를 시작으로 아시아 작곡 연주회, 세계 여성 음악제, 서울 국제 컴퓨터 음악제, 팬 뮤직 페스티벌 등 주로 현대 음악제에서 실내악 주자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또한 통영국제음악제앙상블(Ensemble TIMF)의 창단 멤버로서 활발한 연주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진현주 여사는 현해은, 홍종화, N. Erlich, J. Holloway, W. Koenig 교수와 Melos Quartet을 사사했으며, 현재 송파교향악단 악장과 마드리 실내악단 객원 악장으로 활동했다. 또한 숙명여대, 예원학교, 서울예고, 경기도예고, 예술의전당 음악영재 아카데미에 출강하며 후학 양성에도 힘썼다.

